



福祉社會의 建設

~더 많은 일을~

〈보건사회부장관〉 정 희 섭

오늘 大韓看護協會 第36回 定期總會에 임하여 祝辭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은 相互協力하여 간호사업 발전에 많은 寄與를 해 왔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國民保健向上을 爲한 諸般課題를 스스로 議論하여 國家繁榮에 이바지할 길을 決定하는 일은 참으로 뜻깊은 일이며 이에 衷心으로 致賀하여 마지 않는 바입니다.

現在 政府는 總力을 기울여 國民의 健康管理과 生活安定을 期하여 福祉社會建設에 邁進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汎世界的潮流에 발맞추어 保健分野에 對한 認識을 새로히 하여 一大革新을 가져 왔으며 政府의 強力한 保健施策은 無窮面 解消에 큰 作用을 하여 全國坊坊谷谷에 保健所 및 保健支所를 設置하고 保健醫療事業을 展開하여 傳染病의 豫防과 地方病의 退治에 多大한 成果를 거두었던 것은 果敢한 政府施策 具顯의 證左로서 醫療機關은 都市民이나 農漁村民이나 庶民層에게 골고루 惠澤을 주는 方向으로 그 樣相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農漁村 庶民들의 經濟, 文化, 生産에까지 큰 影響을 주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大韓 保健醫療機關에서 實務를 擔當할 醫療要員의 需要人員 不足은 좋은 政策을 效果的으로 運用하는데 적지 아니한 支障을 招來하고 있으며 특히 全國 各保健所 및 支所에 配置할 看護要員의 充員問題는 深刻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直接 一線에서 農漁民들을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15page에 계속>